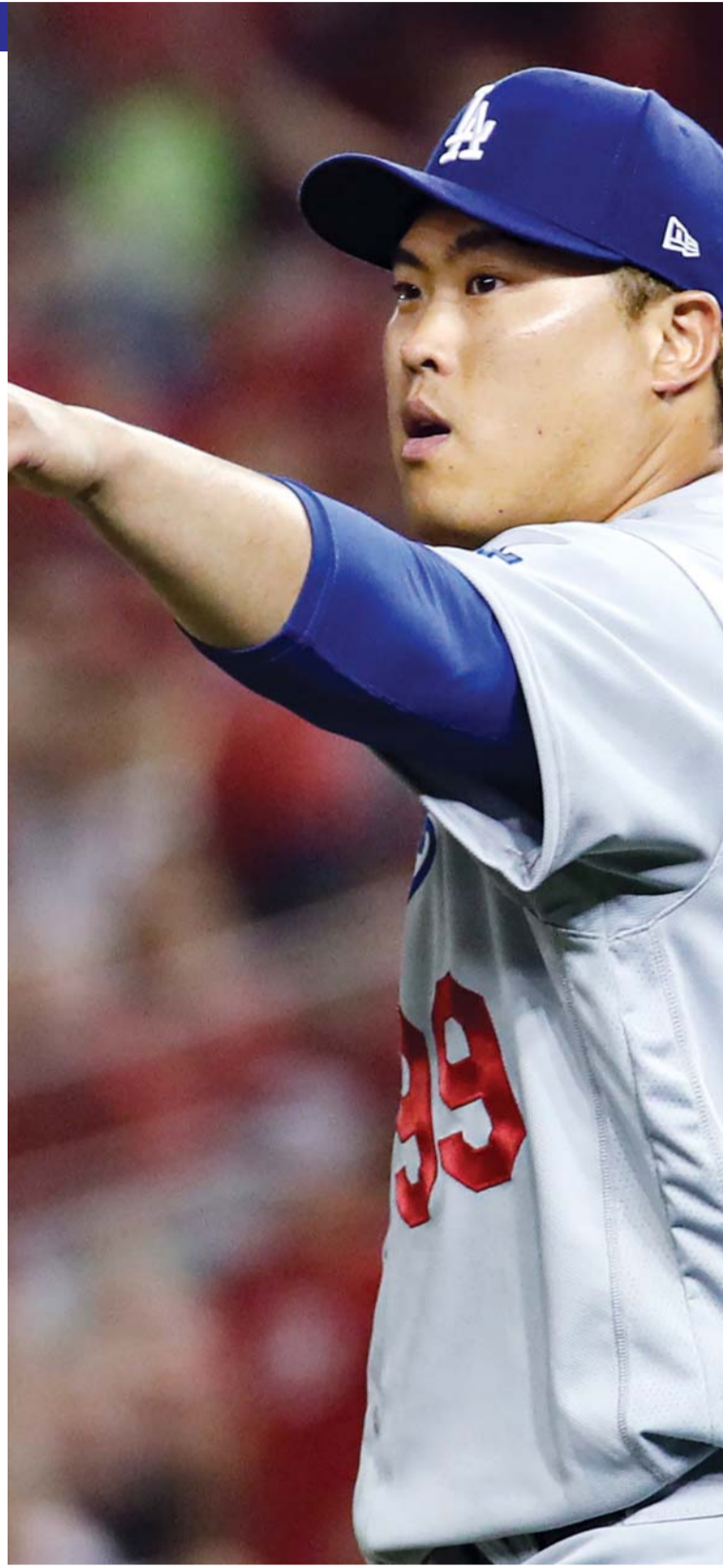


# 잘 던지고 잘 치고... 무르익는 '가을의 전설'

류현진

NLDS 3차전 호투... 승리 투수  
시리즈 전적 다저스 2 : 2 워싱턴  
내일, 최종전 불펜 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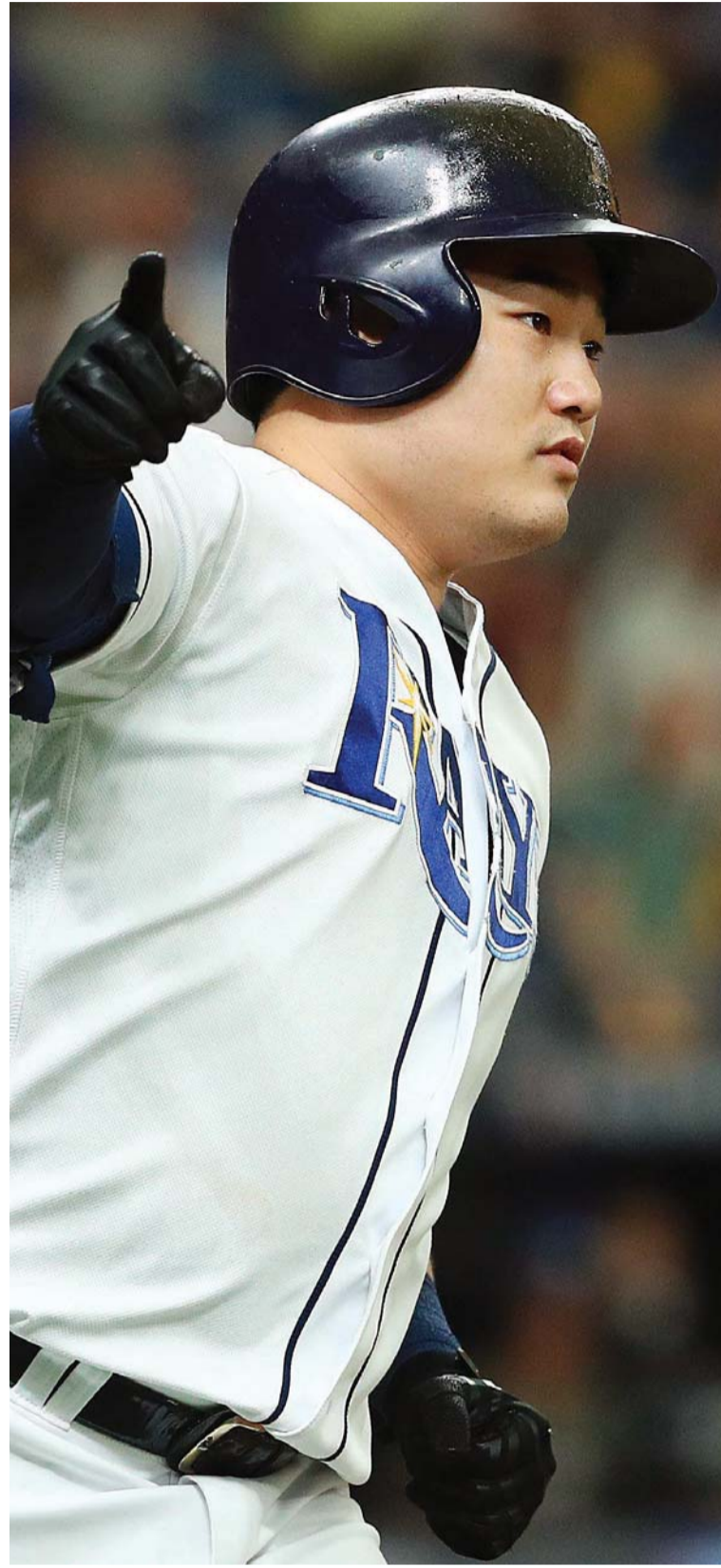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팀의 명운을 안고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포스트시즌 불펜 투수로 나선다. 류현진은 10일(한국시간) 오전 9시 37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최종전 워싱턴 내셔널스와 홈 경기에 불펜 대기한다. 다저스는 8일 워싱턴에 일격을 당하면서 시리즈 전적 2승 2패를 기록해 최종전에 '올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류현진은 선발 등판한 8일 워싱턴과 디비전시리즈 3차전에서 투구수 74개를 기록한 뒤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평소 투구수보다 20~30개 적은 공을 던졌다. 그는 경기 후 디비전 시리즈 5차전이 열리면 불펜 등판해 팀 승리에 힘을 더할 수 있다고 밝혔고, 전해들은 다저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다저스 불펜 상황은 좋지 않다. 핵심 불펜 마에다 겐타가 1,3,4 차전에 등판했고, 조 켈리는 3차전에서 난조를 보이며 흔들렸다. 훌리오 우리아스와 페드로 바에스, 로스 스트리플링은 4차전에서 난타당했다. 대다수 불펜 투수들이 체력과 제구에서 난조를 보여 불안하다. 마무리 투수 켈리 안선은 정규시즌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이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저스는 2차전 선발로 나선 클레이턴 커쇼를 5차전 불펜 투수로 준비했다. 더군다나 5차전 상대 선발은 올 시즌 내셔널리그 다승 1위 스티븐 스트라스버그다. 스트라스버그는 2차전에서 다저스 타자들을 쫓짱 묶었다. 류현진은 최악의 상황에서 팀을 일으킬 중대한 역할을 맡았다. 그는 올 시즌이 끝나면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는데, 5차전이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던지는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다. 류현진은 9일 동료들과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해 결전의 날을 준비한다. /연합뉴스



최지만

ALDS 3차전 포스트시즌 첫 홈런  
탬파베이, 휴스턴에 10-3 대승  
시리즈 첫 승... 오늘 4차전

탬파베이 레이스 최지만(28)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에서 첫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팀의 디비전시리즈 첫 승을 이끌었다. 최지만은 8일 열린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5전 3승제) 3차전 휴스턴 에스트로스와 홈 경기에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최지만의 홈런은 3-1로 앞선 3회 말에 터졌다. 최지만은 2사 볼카운트 2볼 2스트라이크에서 상대 팀 선발 잭 그레인키의 가운데볼린 시속 142km 체인지업을 걸어 올려 우측 담장을 넘겼다. 그레인키는 2009년 사이영상을 받은 메이저리그 톱클래스급 투수다. 올해 정규시즌에서도 18승 5패 평균자책점 2.93을 기록하며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최지만은 이런 그레인키를 상대로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홈런을 쏘아올렸다. 최지만이 포스트시즌에서 홈런을 친 건 2016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뒤 처음이다. 최지만은 4타수 1안타(1홈런) 1타점, 1볼넷, 삼진 2개를 기록했고, 탬파베이는 10-3으로 대승했다. 디비전시리즈 1, 2차전에서 패해 탈락 위기에 몰렸던 탬파베이는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 진출 희망을 이어갔다. 탬파베이는 이날 강력한 화력을 선보였다. 1회초 선취점을 내줬지만 2회 말 2사 1·2루에서 키어 마이어가 3점 중월 홈런을 터뜨리며 역전에 성공했다. 3회 최지만의 홈런으로 4-1로 도망간 탬파베이는 4회 말 공격에서 대거 4점을 추가했다. 선두 타자로 나선 브랜던 로가 초구를 공략해 좌월 솔로 홈런을 작렬했다. 그레인키는 2사 후 윌리 아다메스에게 볼넷을 허용한 뒤 헥터 론돈과 교체됐다. 탬파베이는 이후 3연승 안타로 추가 3득점하면서 승기를 잡았다. /연합뉴스



## 키움, PO 진출 1승 남았다

LG전 이틀 연속 끝내기...오늘 3차전

두 경기 연속 '끝내기 쇼'를 펼친 키움 히어로즈가 '1승'을 위해 잠실로 간다. 키움은 9일 오후 2시 잠실구장에서 LG 트윈스와 준플레이오프(준PO·5전 3승제) 3차전을 치른다. 안방에서 열린 1, 2차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한 키움은 플레이오프 진출에 1승만을 남겨두고 있다. 키움은 6일 열린 준PO 1차전에서 9회말 터진 박병호의 끝내기 홈런으로 1-0 짜릿한 끝내기 승을 거뒀다. 7일 2차전에서도 연장 10회말 1사 3루에서 나온 주효상의 끝내기 내야 땅볼로 극적인 5-4 역전 승을 거뒀다. 두 경기 연속 끝내기 승의 중심에는 '홈런왕' 박병호가 있었다. 1차전에서 상대 마무리 고우석의 초구를 공략해 경기를 끝냈던 박병호는 2차전에서도 홈런포를 가동했다. 1-4로 뒤진 8회말 1사 1루에서 타석에 선 박병호는 LG 김대현을 상대로 가운데 담장 넘어가는 투런포를 날리며 경기 흐름을 뒤집었다. 9회말 키움은 대타 송성문의 중견안타를 시작으로 보내기 번트, 땅볼로 2사 3루를 만들었다. 그리고 서건창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경기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김하성의 선두타자 안타가 나온 10회말에는 김웅빈의 보내기 번트로 1사 2루를 만들었다. 행운도 따랐다. 좌타자 주효상의 승부를 위해 등판한 LG 진해수와 야수진의 손발이 맞지 않았다. 진해수가 2루 견제를 하려다 빈 베이스로 공을 던지면서 1사 3루가 됐다. 이어 주효상이 2루수 앞으로 땅볼을 날렸고, 3루에 있던 김하성이 홈을 밟으면서 키움의 두 경기 연속 끝내기 승리가 기록됐다. KBO 포스트 시즌에서 끝내기 땅볼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키움은 좌완 영건 이소호를 앞세워 3차전을 치른다. 2연패를 기록한 LG는 케이스리 켈리를 내세워 '백랑 끝 승부'에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세계 1·2위 고진영·박성현 샷대결 국내서 본다

내일부터 경기도 여주서 KLPGA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여자골프 세계랭킹 1, 2위에 포진한 고진영과 박성현이 국내 무대에서 맞붙는다. 둘은 오는 10일부터 나흘 동안 경기도 여주 블루헤런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네번째 메이저대회인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에 출전한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1, 2위 선수가 KLPGA 투어 대회에 동반 출전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없는 빅 이벤트다. 고진영과 박성현이 KLPGA 투어 대회에 함께 나선 건 2017년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이후 2년 만이다. 고진영은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에서만 2차례 우승을 거둬 상금왕, 평균타수 1위, 올해의 선수 등 개인 타이틀 석권을 눈앞에 둔 세계 최강이다. 박성현은 2차례 우승으로 LPGA 투어 상금, 평균타수, 올해의 선수 포인트에서 모두 3위를 달리는 등 세계 정상급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고진영은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에 이어 2주 연속 국내 대회 출전이다.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를 포함하면 올해 세번째 KLPGA 투어 대회 등판이다. 박성현은 작년 9월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이후 1년 만에 KLPGA 투어 대회에 나선다. 대회가 열리는 블루헤런 골프클럽은 메이저대회 개최지답게 긴 전장과 빠르고 단단한 그린으로 무장한 난도 높은 코스로 이름 높다. 고진영과 박성현 모두 난도가 높은 코스에서 열리는 메이저대회에서 유난히 뛰어난 성적을 거둔 '메이저러' 인만큼 명승부가 기대된다. KLPGA 투어 개인 타이틀 경쟁도 이 대회에서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개인 타이틀 레이스는 최혜진의 독주 양상이지만 뜯어보면 꼭 그렇지 않다. 최혜진은 상금, 대상 포인트, 평균타수, 그리고 다승까지 모조리 1위에 올라 있다. 그러나 상금은 장하나와 1억5000만원 차이이다. 이 대회 상금 2억 원이면 추월이 가능하다.



고진영



박성현

대상 포인트도 불안한 1위다. 2위 박재윤에 고작 46점 앞섰다. 이 대회 우승에는 대상 포인트 70점이 걸렸다. 평균타수에서도 2위 이다연과 차이는 0.183타에 불과하다. 다승(4승) 1위도 여유롭지는 않다. 2승을 올린 2위 그룹에서 우승자가 나오면 1승 차이로 쫓긴다. 신인왕 싸움도 이 대회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 선두 조아연이 2승째를 수확하며 한숨을 돌렸지만, 추격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조아연에 앞서 2승 고지에 오른 임희정은 다시 한번 반격을 노린다. 하이트 로고를 오래도록 달고 뛰는 김하늘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서향순 씨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유도 금메달리스트 박경호 씨의 딸인 캐서린 박(미국)은 추천 선수로 출전한다. /연합뉴스

## 부흥기 맞은 K리그

누적 관중 200만명 돌파...광주 올 평균 3074명 전년비 두배

2019시즌 K리그 누적 관중수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뜨거운 순위 경쟁 속 팬 진화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K리그 인기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6일 전국 6개 구장에서 열린 K리그1 경기에 5만7503명이 입장했다. K리그2 5경기에는 2만1272명이 찾았다. 이에 따라 K리그1 33라운드 종료된 현재 누적

관중수는 158만4378명, 32라운드 일정이 끝난 K리그2의 누적 관중수는 44만1922명이 됐다. K리그 1·2 합계 누적 관중수는 202만6300명. K리그가 1·2부 관중수 합계 200만명을 넘은 것은 2016시즌(212만239명)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에는 155만1947명, 2017시즌에는 190만9128명, 2016시즌에는 212만239명의 누적 관중수를

기록했다. 2013년 이후 최단경기 200만 관중 돌파이자 2018년 유료관중집계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첫 200만 관중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올 시즌 K리그는 1·2부 합계 358경기(K리그1 198경기, K리그2 160경기)만에 시즌 누적 관중수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3시즌 344경기 이후 6년 만에 작성된 최단경기 200만 관중 돌파 기록이다. 2018시즌부터 관중 집계방식을 전면 유료 관중 집계로 전환한 만큼 이번 시즌은 순수 유료 관중만으로 200만명대 관중수를 넘은 최초의 시즌으로도 기록된다.

한편 이번 시즌 K리그1 33라운드 종료 현재 누적 관중수 158만4378명은 지난 시즌 같은 라운드 107만8426명에 비해 46.9% 증가할 수 있다. K리그2 역시 44만1922명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24만6064명에서 79.6% 증가했다. K리그2 1위 광주FC의 관중 증가세도 눈에 띈다. 광주는 올 시즌 16경기에서 4만9188명의 관중을 불러들이면서 지난 시즌 총관중 2만7393명을 이미 넘어섰다. 평균관중도 지난 시즌 1522명에서 올 시즌 3074명으로 수직 상승했다. 광주는 앞으로 홈에서 두 경기를 더 치른다. 오는 19일 FC안양을 상대하고 내달 3일 전남드래곤즈와 홈 최종전을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